

## 한국복식에 나타나는 사회적 상징 연구 - 전통설화를 중심으로 -

김애련<sup>†</sup>·김진구\*

한양여자대학 패션 디자인과, 복식문화학회\*

### A Study on the Social Symbolism of the Korean Dress - Centering around the Traditional Korean Folktale -

Ae-Yeon Kim<sup>†</sup> and Jin Goo Kim\*

Dept. of Fashion and Design, Han Yang Women's College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2005. 3. 28. 접수 : 2005. 5. 14. 채택)

####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ocial symbolism of the dress described in the traditional Korean folktale focusing on the Choson Dynasty. As references, *An outline of the Korean oral literature*: 82 volumes in total and *written Korean narrative*: 7 volumes in total written by Kim Hyeon Ryong were selected. As regards method of study, first, the social symbolism of the dress described in the traditional folktale has been extracted: afterwards, those were classified and summarized according to theme of a clothing, hairstyle, and belt, etc. And the social symbolism of the dress has been analyzed based on the theory of symbolis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llowing conclusion has been obtained. First, political relationship and ideology represented through costumes. Second, old customary clothing behaviour represented. Third, sex and age symbolism were represented through protagonists. Fourth, married or unmarried symbolism represented.

*Key words: dress(복식), social symbolism(사회적 상징), traditional folktale(전통설화).*

#### I. 서론

복식은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반영물로서 가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복식을 통하여 사회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측면들인 정치, 경제, 관습, 사회적 지위 및 신분, 성별 및 연령, 결혼 여부, 사회적 상황 등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복식에 나타나는 사회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식이 상징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상징이란 내면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간의 내면적 특성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원천이 되며, 상징의 의미가 보편성을 띠 때 사람들은 그 의미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징의 의미는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Mukerjee<sup>1)</sup>는 상징이 개인의 인성뿐 아니라, 도덕률, 성문법, 사회조직 중 그 어떤 것보다도 사회과정에 대한 최상의 단서가 되며 가장 논리적 의사 전달의 기능을 갖는

<sup>†</sup> 교신저자 E-mail : aeryeon1@hanmail.net

1) R. Mukerjee, *The Symbolic Life of Man* (Bombay: Hind Kitabs Limited, 1959), pp. 8-10.

다고 하여 사회적 상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인간의 상징 능력으로 인해서 인간은 물질적·사회적·심리적 욕구 등을 창조하며, 복식에는 이러한 욕구가 상징적으로 잘 표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복식은 한 개인의 정체성을 전달하며 그 정체성이 상징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인 상징 연구인데, 복식이 갖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서 복식 상징은 다양하고 다의적이다.

문학 작품에는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잘 표출되어 있으며, 작품 속의 등장 인물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 또한 그러한 요소를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문학작품 중에서도 설화에는 한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및 신분, 신앙, 관습, 가치관, 생활 양식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어느 시기에서나 해당 문화권의 시대상과 구성원들의 사회적 특성을 드러내는 매개체로서 복식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국문학에서 선행된 설화 연구는 많으며, 최근에는 설화와 상징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연구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복식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류학에서도 설화와 관련된 복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전통 설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복식 연구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전통 설화 속에서 우리 민족의 복식 관련 내용을 찾아서 함축하고 있는 상징을 분석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 설화를 분석 자료로 하여 사회적 상징과 관련된 복식 내용을 찾아내어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구비문학 대계 전 82권과 김현룡의 한국문헌설화 전 7권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인용되는 전통 설화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 시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전통 설화에서 복식 관련 내용을 발췌한 후, 의복, 머리 형태, 장신구 등으로 주제별로 분류하여 요약한 다음, 상징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위해 편의상 설정한 분석틀에 따라서 심리적 상징, 사회적 상징, 문화적 상징으로 분류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된 상징 이론과 복식 상징 이

론을 바탕으로 복식에 표출되는 사회적 상징을 찾아내어 정치, 경제, 관습, 사회적 지위 및 신분, 성별 및 연령, 결혼 여부 상징으로 구분하여 상징의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 및 신분 상징은 복식 문화 연구 10권 4호에, 경제적 상징은 한국생활과학연구 20권 20호에 게재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제외할 것을 밝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 관습, 성별 및 연령, 결혼 여부 상징에 관한 한국 복식의 사회적 상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服飾이라는 용어는 의복, 장신구, 화장 뿐 아니라 머리 형태와 복식에 수반되는 행동까지 포함하며, 장신구에는 신발, 허리띠 등이 포함된다. 외모는 얼굴이나 신체 특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설화가 갖는 구전이라는 특성으로 구술이나 기록 내용이 정확하지 못한 자료의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상징 분석에 있어서 전통 설화는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이 다른 현재의 우리들의 잣대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징의 다의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상징의 해석이 분석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설화와 전통설화의 선행연구

설화는 사실이나 허구에 관계없이 관련이 있거나 혹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에 대해 서술한 이야기이며<sup>2)</sup> 어떤 한 민족이 공동 생활을 하는 중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구비 문학을 이르는 것으로 민중에 의해 시작되고 구전되는 이야기이다.

설화는 문헌 설화와 口碑說話 혹은 口傳說話로 구분된다. 구비와 구전은 대체로 같은 뜻이지만, 구전은 ‘말로 전함’을 뜻하는데 그치나, 구비는 ‘입으로 만든 비석’이라는 의미로서 입으로 전하되 비석처럼 오래 전승되는 문학을 말하는 것으로 불변성이나 고정성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이다. 문헌 설화는 입으로 전해져오는 구전 설화가 문자로 기록된 것이며, 민중들의 의식이 용해되어 있어 한 민족의 역사, 신앙, 관습, 풍속, 가치관, 생활 양식, 소망 등이 반영되어 있다.

2)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2nd. ed., Vol. 10 (Oxford: Clarendon Press, 1989), p. 181.

전통 설화는 국민적인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설화이며<sup>3)</sup>, 우리나라의 전통 설화 연구는 1920년대 구비문학의 영역에서 시작되었다. 개화기 이전의 설화 관계 문헌으로는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世宗實錄 地理志, 東國輿地勝覽 등 많은 문헌들이 있다. 광복 이후에는 1969년부터 1978년까지 道別로 수록한 전국 규모의 한국 민속 종합 보고서 전 9권을 출간하였으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전국적으로 설화를 채록한 한국 구비 문학 대계 전 82권을 출판하였다.

설화 연구가 활발한 국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설화 연구는 몇 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중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각 도별로 설화를 채록하는 경우이다. 그 외, 선행된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덕순<sup>4)</sup>은 구전 설화와 문헌 설화의 분류를 최초로 시도하고 설화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배원룡<sup>5)</sup>은 나뭇꾼과 선녀 설화 연구와 같이 한 가지 설화의 문학 구조를 연구 분석하였다. 또한 손정희<sup>6)</sup>의 “풍수설”처럼 한 가지 주제에 해당하는 설화들을 분석하는 유형도 흔히 볼 수 있으며, 박현국<sup>7)</sup>은 설화의 신화적 구조를 분석하여 상징의 의미를 연구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국문학에서의 설화 연구는 다양하지만 선행된 설화 관련 연구의 패러다임이 복식의 사회적 상징을 고찰하려는 본 연구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화에 나타나는 복식의 내용만 탈채하여 사회적 상징을 분석할 것임을 밝힌다.

## 2. 상징 이론과 복식

### 1) 상징 이론

상징은 인간 생활에서 고유한 것으로 인간의 내밀한 양상뿐 아니라, 외부 세계에 관한 의미를 파악하는데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상징하려는 욕구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그 의미를 공유할 때 상징의 의미는 비로소 중요하게 된다. Morgan, Frost, Pundy<sup>8)</sup>는 상징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느낌의 연합을 요구하며 풍부한 의미와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Durand<sup>9)</sup>은 상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존재론, 사회중심적인 태도, 문화 중심주의적 존재론 등의 방법론을 각각 분리하여 연구하기 보다는 인류를 연구하는 학문의 총화인 인류학적 견지에서 연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상징에서 표출되는 사회적, 문화적 측면들로 도덕, 祭儀, 사회적 관습, 계급, 신분, 직업, 언어, 미학 양식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상징의 중요성을 언급한 학자들의 이론은 다음과 같다. Mukerjee<sup>10)</sup>는 상징이 개인의 인성뿐 아니라, 도덕을, 성문법, 사회 조직 중 그 어떤 것보다도 사회 과정에 대한 최상의 단서가 되며 가장 논리적 의사전달의 기능을 갖는다고 하여 상징의 사회적 중요성을 표명하였다. Radcliffe-Brown이 개발한 사회 구조론에 의하면, 사회 구조가 사회 집단, 사회 계급, 사회 역할 등의 사회 관계에 대한 조직이나 연결망이며, 각 구조 체계는 기능적 통합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가정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사회 현상들인 도덕, 법, 관습, 예의, 종교, 정치, 경제, 교육, 언어 등은 분리되지 않은 채 연구되어야 하며, 사회 구조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관계를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sup>11)</sup>. House<sup>12)</sup>는 사회 구조가 사회적 지위나 상황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사회적 지위, 계층 등이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척도임을 밝혔다.

3) 동아 새 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83), p. 1087.

4) 장덕순, *한국설화문학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0).

5) 배원룡, *나뭇꾼과 선녀설화의 연구* (서울: 집문당, 1993).

6) 배중탁, “풍수설의 국문학적 수용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7) 박현국, “설화의 신화적 구조와 상징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8) L. R. Pundy, P. J. Frost and G. Morgan, "Overview: Organizational Symbolism," *Organizational Symbolism* (Greenwich: Jai Press Inc., 1983), pp. 4-5.

9) Gilbert Durand, *L'imaginatio Symbolism*, 진형준 역, *상징적 상상력*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 pp. 113-118.

10) R. Mukerjee, *Op. cit.*, pp. 8-10.

11) A. R. Radcliffe-Brown, *Structure and Function in Primitive Society: Essays and Address* (London: Bohen & West, 1952), p. 195.

12) J. S. House, "The Three Faces of Social Psychology," *Sociometry*, Vol. 40 (1977), pp. 161-177.

Rasmussen<sup>13)</sup>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상징 해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내용은 첫째, 상징 형식의 보편적 타당성과 풍부성을 언어 형식으로 확인해야 하며, 둘째, 상징에 대한 철학적 해석 틀의 구축을 통해 상징의 지향성을 포착하고, 셋째, 상징이 문화의 핵심부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서 현대에 이르러 축소된 상징의 의미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징은 보편성이 확보된 후, 상징의 의미 해석을 위하여 분석 틀을 설정하여 문화의 여러 가지 요소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Rasmussen의 상징 해석론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상징을 연구할 때 적용하는 분석법으로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복식 상징

인간의 상징 능력에 대해서 White는 다른 동물과는 달리 생물학적으로 진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sup>14)</sup>. 이러한 인간의 상징 능력으로 인해서 인간은 물질적·사회적·심리적 욕구 등을 창조하며, 문화의 한 요소인 복식에는 이러한 욕구가 상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으며, 복식이 가지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서 복식 상징은 다양하고 다의적이다. Douglas<sup>15)</sup>는 상징 체계 밑에 사회적·문화적 의미가 숨어 있음을 나타내었으며, 정정체성, 지위, 계급 조직 등의 사회 규칙이 시각적으로 입증되는 곳에서는 복식은 강력한 문화적 상징이라고 하였다.

복식 상징의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Rosen-cranz<sup>16)</sup>는 복식 상징을 나타내는 다양한 측면들에 개성 對 동조성, 관습 對 유행, 지위, 직업과 여가, 성, 성적 매력, 연령, 취향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지위 상

징의 척도는 복식의 종류, 양, 정교한 정도, 가격, 회소성 등이라고 하였으며, 지위의 높고 낮음은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실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복식은 한 개인의 정체성을 전달하며, 그 정체성이 상징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상징 연구이므로 정체성과 상징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식 정체성을 연구한 Kefgen and Specht<sup>17)</sup>는 개인의 정체성을 인성, 가치관, 태도, 흥미, 생활 양식 등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한 개인을 평가할 때 머리 형태, 화장, 복식뿐 아니라, 걸음걸이, 얼굴과 몸을 움직이는 방식 등도 개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Roach and Eicher<sup>18)</sup>는 개인의 자아가 사회 구조 내에서 부여되고 획득되는 정체성과 함께 하며, 친족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측면으로 세분화된 사회 구조를 중심으로 복식 정체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친족 집단에서 복식은 다양한 상징성을 지니는데 대부분의 사회에서 결혼 반지가 기혼자임을 상징하는 의사 전달의 수단이라고 하였으며, 한 사회의 경제적 구조는 복식으로 직업을 나타내는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한편, 정치 구조는 사회 속에 있는 권력을 구조화하고 규정하는 것으로 전체 군주 정치와 같은 정치 구조에서의 지도자는 옷, 왕관, 홀 등을 착용하여 의례에서 자신을 나타낼 때 공적인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하였으며, 종교적 집단 내에서 복식 행동의 규칙은 종교 지도자와 추종자 간에 분명하게 구분되는 복식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에 진행된 우리나라 학자들의 복식 상징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유경<sup>19)</sup>은 Charles Dickens의 작품 속에 나타난 복식 상징성을 연구하면서 상징을 심리적

13) D. M. Rasmussen, *Symbol and Interpretation*, 장석만 역, *상징과 해석* (서울: 서광사, 1988), pp. 9-11.

14) L. A. White, *The Science of Cultur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69), pp. 29-39.

15) M. Douglas, "Natural Symbols." quoted in A. Lynch, S. O. Michelman & J. E. Hegland, "Cross Cultural and Intra-Societal Application of a Delong's Framework for Visual Analysi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6 No. 4, (1998), p. 155.

16) Mary Lou Rosencranz, *Clothing Concepts: A Social-Psychological Approach* (New York: Macmillan Co., 1972), pp. 95-249.

17) Mary Kefgen and Phylis Touchie Specht,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1), pp. 19-54.

18) M. E. Roach-Higgins and J. B. Eicher, "Dress and Ident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0 No. 4 (1992), pp. 1-7.

19) 이유경, "Charles Dickes 소설에 나타난 복식 상징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측면, 사회적 측면, 초현실적 측면, 기타·인구통계학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사회적 측면에 관한 복식 상징성 묘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식의 사회적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김희선<sup>20)</sup>은 Pearl S. Buck의 작품을 중심으로 복식 정체성 연구를 하였다. 김희선은 정체성을 문화적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 심리적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난 정체성은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하였다. 이런 결과는 복식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제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복식의 사회적 중요성을 재입증한 것이다.

### Ⅲ. 결과 및 논의

인간의 복식 행동은 사회적 관계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회 구조에 따라서 결정되며, 한 사회의 정치, 경제, 관습, 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사회 구성 요소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조선 시대는 신분형 사회 체제였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 및 신분, 직업 등은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으므로 구성원들의 복식에는 사회 구조의 영향이 많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 설화의 등장 인물의 복식에서 사회적 상징을 찾아내어 의미를 연구하고자 한다.

#### 1. 정치적 상징

복식의 단서를 통하여 우리는 한 사회의 정치 구조 뿐 아니라, 정치적 관계, 정치 이념 등도 알 수 있으며, 이때 복식은 도구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등장 인물의 복식 중에서 정치를 상징하는 것을 찾아서 분석하고자 한다.

##### 1) 정치 관계

정치 관계는 복식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설화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유척기 이야기』<sup>21)</sup>에서는

「유척기가 명이 멸망 후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이대감이 준 청나라 朝服 대신 명나라 朝服을 입

고 가자 청태조가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天子께서 등극하시면서 우리더러 어떤 制服을 입고 라고 일러주신 일이 있소?” 그래서 입던 옷을 입고 을 수밖에 없다.”

청나라 조복과 명나라 조복은 중국을 상징하는 옷이므로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의 관복을 입고 사신으로 가는 행동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종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사신이 멸망한 명나라 조복을 착용하고 청나라 황제에게 어떤 제복을 입으라고 일러줬느냐고 되묻는 행동은 만주족이 건국한 청나라를 멸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설화 내용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종속되어 있는 관계임을 나타낼 뿐 아니라, 한족에 대한 모화사상을 상징하고 있다.

##### 2) 정치적 이념

복식은 정치적 이념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는데 설화에서 볼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孝宗』<sup>22)</sup>에서는

「孝宗의 딸 숙희공주가 繡籠은 비단치마를 마련했을 때, 효종은 천하에 검소한 기풍 진작을 우선으로 하기에 비단 繡 치마를 입지 못하도록 하였다.»

비단 수 치마는 비싸고 귀한 치마로써 높은 경제 수준과 사회적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다. 설화에서 비단 수 치마를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치 억제를 정치적 기풍으로 삼은 효종이 딸인 숙희공주로 하여금 백성의 모범이 되어 사치 억제라는 정치 이념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비단 수 치마를 못 입게 하는 것은 효종의 정치 이념을 상징한다.

##### 2. 관습적 상징

관습은 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생활 속에서 관행으로 내려온 것으로 등장 인물의 복식이나 의모를 통해서 관습에 해당하는 복식의 상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습을 나타내는 복식의 상징을 찾아서 그 의미를 연구하고자 한다.

20) 김희선, “Pearl S. Buck 소설의 복식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유척기 이야기,” *한국구비문학 대계* 2권 1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pp. 110-111.

22) 김현룡, “孝宗,” *한국문헌실화* 1권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8), p. 46.

관습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복식이 사용되는데 그러한 예를 설화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주인 살린 도둑중』<sup>23)</sup>을 보면,

「草笠하고 도포 벗어서 등잔에다 둘러쓰는 거라. 초립이라고 이전에 있었어. 나이 어린 신랑은 초립을 써. 갖이 아니고. 그 초립을 벗어 가지고 등잔에다 딱 써서 여기에서 풀딱 내리 뛰든..」

초립은 설화의 내용에서처럼 어린 신랑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쓰던 모자이다. 예로부터 조혼이라는 관습으로 인해서 신랑은 신부보다 나이가 어려 꼬마신랑, 어린 신랑이라는 호칭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초립은 조혼이라는 관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머리 형태는 삼국 시대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성별이나 결혼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양마부와 문둥이 각시』<sup>24)</sup>에는

「양마부가 군수를 태우고 서울로 가서 군수의 집에 모셔주고는 동작강을 건너오는데 울음소리가 나서 웬 사람이냐고 물어보니 물에 빠져 죽을라고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 말이야. 아 그래서 보니 머리가 치매 안 반쪽까지 땀다 말여. 아 그런 처녀여. 그래서 죽을 거 뭐 있냐고 나를 따라가자 하니까 좋다고 해서..」

치매 반쪽까지 땀은 머리란 엉덩이 길이까지 길게 땀은 머리를 말하는 것으로 땀은 머리는 미혼여성의 관습적인 머리형태를 상징한다.

『보쌈으로 업혀간 남자』<sup>25)</sup>를 보면,

「부인될 여자인 과부가 머리를 이렇게 길렀으니 까, 깎지 않았으니까 쪽을 찢고 의복을 죄 갈아서 입구 아주 단장을 하구..」

설화에서 묘사된 쪽진 머리는 기혼 여성의 관습적인 머리 형태를 상징한다.

『과부에게 장가 든 노총각』<sup>26)</sup>을 보면,

「한 노총각이 장가도 못 가고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앞집의 이십대 과부를 마음에 두고 낫술을 먹고서 그 집에 가서는 아버지에게 쫓겨났다고 거짓말

을 하고는 숨겨달라고 했던 말이야. 옛날에는 나이가 많아도 상투를 못 올리고 머리꼬리를 땀아 내려놓으면 아이 취급을 했던 말이야..」

『정승의 사위된 황도령』<sup>27)</sup>에는

「한중이 부인더러 상투를 짜달래서 상투를 짜니 누가 보든지 총각이 아니라 내외분이란 말야..」

두 편의 설화에서 상투를 짠다는 것은 머리를 들어 올려 상투머리를 하는 것으로 기혼 남성의 관습적인 머리 형태를 상징한다.

『金時翫』<sup>28)</sup>에서는 김시습이 머리를 깎고 승이 되었다가 머리를 기르고 환속한 후, 다시 머리를 두타형으로 깎는 것이 나타난다.

「조선 초기에 김시습은 세조의 즉위를 슬퍼하며 머리를 깎고 승이 되었는데, 성종 12년에 갑자기 머리를 기르고 환속했다. 얼마 후 아내가 사망하니 다시 출가해 승이 되어 머리를 두타형(頭陀形)으로 하고 ...」

頭陀란 번뇌를 버리고 탐심이 없이 깨끗하게 佛法을 닦는 승려를 말하는 것으로 頭陀形 머리란 승려의 깎은 머리 형태를 말하는 것이며, 俗人은 승려의 머리와는 반대로 머리를 기르는 것이 관례화되어 왔다. 따라서 出家時 頭陀形으로 머리를 깎는 것과 還俗時 머리를 기르는 머리 길이의 변화는 관습에 충실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 3. 성별 및 연령 상징

우리가 타인을 평가할 때 성과 연령은 가장 먼저 판단되는 요소이며 두 요소는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평가될 뿐 아니라, 그 판단은 가장 정확하다. 따라서 등장 인물의 복식이나 외모를 통해서 성별과 연령의 상징을 찾아서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아동

아동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복식이 사용되는데, 설화에는 그러한 예들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인 살린 도둑 중,” 한국구비문학 대계 1권 1호, p. 558.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양마부와 문둥이 각시,” 한국구비문학 대계 6권 2호, p. 68.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보쌈으로 업혀간 남자,” 한국구비문학 대계 1권 9호, p. 540.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과부에게 장가 든 노총각,” 한국구비문학 대계 2권 9호, p. 274.

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승의 사위된 황도령,” 한국구비문학 대계 2권 7호, p. 458.

28) 김현룡, “金時翫,” 한국문헌설화 5권, p. 86.

나타난다.

『貞禧王后』<sup>29)</sup>에는 여자 아이의 짧은 옷이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다.

「세종 때, 수양대군의 결혼 문제로 판중추부사 윤번의 큰 딸을 선보려 감찰 각씨가 궁중에서 갔다. 이때 큰 딸 옆에 작은 딸이 아직 어려서 짧은 옷을 입고 구경하고 있었다.」

설화에서는 여자 아이의 옷을 짧은 옷으로 묘사하여 여아의 상징으로 나타낸다.

『조상서사동』<sup>30)</sup>을 보면, 남아의 봉송한 머리털이 묘사되어 있다.

「조상서는 知人之鑑이 있었다. 하루는 집에 있으면서 한 아동이 붓을 팔러고 왔는데 모습이 단정하고 머리털이 봉송해 귀여웠다.」

봉송하다는 표현은 머리털이 부수수하다는 의미이며 남아들의 꾸미지 않은 머리로서 남아를 상징한다.

『정승날 자리, 왕이 날 자리』<sup>31)</sup>에서는

「일곱 살 먹으면 중의도 벗고 다닐 때인데 오성대감이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가 산에다 조상묘를 모시겠다고 했다는 거여...」

中衣는 남자의 여름 홀바지로서 中衣 조차 벗고 다닐 때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남아를 상징한다.

## 2) 성 인

성인을 나타내는 데는 복식이 수단이 되며 설화에는 그러한 예들이 다음과 같다.

『영리한 윤두수 후처』<sup>32)</sup>를 보면,

「땡기 꼬랭이가 궁둥이 밑에까지 치렁치렁한 여자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아름다워 보아드래요.」

미혼녀의 머리 형태는 땅은 머리에 홍색 땡기를 드리웠다. 설화에서 땡기 꼬랭이가 궁둥이 밑에까지 치렁치렁하다는 것은 머리 길이가 길다는 점을 알 수 있

게 하므로 땡기 꼬랭이가 궁둥이 밑에까지 치렁치렁한 머리는 등장 인물이 미혼 여성임을 상징한다.

『구렁덩덩 신선비』<sup>33)</sup>에는 금봉채 비녀가 나타난다.

「혼인잔치를 크게 하는데 금봉채 비녀에다가 장에 가서 이름도 모르는 비단 에다가 해서는 아주 크게 잔치를 하는데...」

비녀는 기혼 여성의 쪽진 머리의 수식품으로써 등장 인물이 기혼 여성임을 상징한다.

『식진나복』<sup>34)</sup>을 보면,

「옛날에 부인들이 머리에 파마자 기름을 많이 발랐단 말이야. 자는데 머리맡의 기름병이 머리에 떨어져서 남편의 상투에 기름이 발려졌는데, 조금 후 부인의 간부가 들어와 머리를 만져 보더니 남자 머리는 기름을 바를 리 없다고 생각하고 옆에 있던 부인을 죽였지.」

머릿 기름은 기혼 여성들의 쪽진 머리카락이 없거나 머리의 형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설화에도 기혼 여성들이 머릿 기름을 발라 머리를 정돈한 것을 알 수 있게 하므로 설화에 나오는 파마자 기름은 등장 인물이 성인 여성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忠州 廣文』<sup>35)</sup>을 보면,

「한 선비가 기생을 사랑하였는데, 이별을 할 때 지어준 시에서 검고 넓은 가족신은 신고 있는 발 편하리..」

신은 전통적으로 性を 상징하며, 검고 넓은 가족신이란 기생의 넓어진 玉門을 상징한다.

『세 대룡의 예언』<sup>36)</sup>에서는 수염이 기다랗게 난 남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수염이 난 아들이 자리에 누운 것도 불안한데 두 내외가 누워 자는데 그 복판에 아들이 누워 있으면 그 뒤 편한가 말이야. 하물며 형 늙고 형수 누운 사이에 수염이 기다랗게 난 동생이 누웠는디 어떻게 좋겠느냐고...」

29) 김현룡, “貞禧王后,” 한국문헌설화 3권, p. 45.

30) 김현룡, “조상서사동,” 한국문헌설화 6권, p. 159.

3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승날 자리, 왕이 날 자리,” 한국구비문학 대계 1권 1호, p. 92.

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영리한 윤두수 후처,” 한국구비문학 대계 1권 3권 1호, p. 424.

3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구렁덩덩 신선비,” 한국구비문학 대계 1권 6권 8호, p. 725.

3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식진나복,” 한국구비문학 대계 1권 2권 1호, p. 267.

35) 김현룡, “忠州 廣文,” 한국문헌설화 4권, p. 545.

3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세 대룡의 예언,” 한국구비문학 대계 1권 1호, p. 71.

남성의 수염은 성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연령 상징적인 단서이다. 따라서 설화에 나오는 기다랗게 난 수염은 등장 인물이 성인 남성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흰 수염』<sup>37)</sup>에는 남성의 검은색과 흰색의 수염이 묘사되어 있다.

「조선 초기에 한 낭관(郎官)이 늙어 수염이 반백인데, 너무 늙어 보여 기생에게 거절을 당하자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사정 애기를 하고 흰털을 뽑아달라고 했다. 그러자 아내는 검은 털을 다 뽑고 흰털만 남겨 놓고는 다시 젊은 소년으로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수염의 색은 연령을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흰수염은 늙은 노인을 표시하여 남성다움이 없음을 상징하며, 검은 수염은 젊은 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성다움의 상징인데, 설화의 내용에서는 노인의 아내가 흰털만 남겨 놓고는 젊은 소년으로 되었다며 반대로 말하고 있다.

『돈 많은 과부를 얻어 팔자 고친 머슴』<sup>38)</sup>에서는 남성의 구레나룻이 바람에 날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한 돈 많은 과부가 남자 머슴을 불러 올려 보니까 수염이 구레나룻 그 저 양쪽 수염이 펄펄 날려 바람이 불면 펄펄 날려 보니까 괜찮아. 다듬어 났으면...」

우리나라에서 구레나룻은 보통의 수염과는 달리 모든 남성에게 다 있는 외모 특성이 아니므로 옛부터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설화에서도 바람에 펄펄 날리는 구레나룻을 통하여 길고 술이 많은 모발을 강조하면서 남성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화에 나오는 구레나룻은 성인 남성의 남성다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 4. 결혼 여부 상징

많은 문화권에서 결혼 여부의 상징이 복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등장 인물의 복식과 외모 특성 중에서 결혼 여부를 상징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

서 연구하고자 한다.

##### 1) 미 혼

미혼임을 나타내는 데는 복식이 사용되며, 설화에는 그러한 예들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양마부와 문둥이 각시』<sup>39)</sup>를 보면, 여성의 머리가 치매 안 반쪽까지 땅아져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양마부가 군수를 태우고 서울로 가서 군수의 집에 모셔주고는 동작강을 건너오는데 울음소리가 나서 웬 사람이나고 물어보니 불에 빠져 죽으려고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 말이야. 아 그래서 보니 머리가 치매 안 반쪽까지 땅다 말여. 아 그런 처녀여. 그래서 죽을 거 뭐 있냐고 나를 따라가자 하니까 좋다고 해서..」

치마 반쪽까지 땅은 머리는 상당히 긴 머리를 땅은 것으로 땅은 머리는 미혼 여성의 전형적인 머리 형태로서 미혼 여성을 상징한다.

『과부에게 장가 든 노총각』<sup>40)</sup>에서는 남성이 상투를 못 올리고 머리꼬리를 땅아 내려놓은 것을 묘사하고 있다.

「한 노총각이 장가도 못 가고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앞집의 이십대 과부를 마음에 두고 낫술을 먹고서 그 집에 가서는 아버지에게 쫓겨났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숨겨달라고 했던 말이야. 옛날에는 나이가 많아도 상투를 못 올리고 머리꼬리를 땅아 내려 놓으면 아이 취급을 했던 말이야.」

상투를 못 올리고 머리꼬리를 땅아 내리는 형태는 조선시대 미혼 남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나이가 많아도 연령과 관계없이 미혼 남성은 머리를 땅아 뒤에 늘어뜨렸다.

##### 2) 기 혼

기혼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복식이 사용되는데, 그러한 설화는 다음과 같다.

『개가 둔갑하여 머느리를 죽이다』<sup>41)</sup>와 『보쌈으로 업혀간 남자』<sup>42)</sup>에는 머리를 올려주구와 쪽을 찌고 등

37) 김현룡, “흰수염,” *한국문헌설화* 4권, pp. 583-584.

3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돈 많은 과부를 얻어 팔자 고친 머슴,” *한국구비문학 대계* 1권 3권 4호, p. 448.

3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양마부와 문둥이 각시,” *한국구비문학 대계* 1권 6권 2호, p. 68.

4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과부에게 장가 든 노총각,” *한국구비문학 대계* 1권 2권 9호, p. 274.

4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가 둔갑하여 머느리를 죽이다,” *한국구비문학 대계* 1권 1권 1호, p. 154.

4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보쌈으로 업혀간 남자,” *한국구비문학 대계* 1권 1권 9호, p. 154.



으로 묘사되어 있다.

『개가 든갑하여 며느리를 죽이나』를 보면,  
「머리 올려 주구 집 하나 장만해 줬다. 『보쌈으로  
업혀간 남자』에는 부인될 여자가 참머리를 이렇게  
길러 쪽을 찌고 단장을 하구.」

머리 올려주구라는 말은 머리를 틀어 올리는 형태  
인 기혼녀의 엷은 머리와 쪽진 머리를 말하는 것으로  
기혼녀를 상징하며, 쪽을 찌다라는 표현은 여자가 머  
리를 땀아 틀어올려 비녀를 꽂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혼녀를 상징한다.

『보쌈으로 얻은 사위』<sup>43)</sup>에는 남성이 상투 바람으로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한 진사가 홀애비인데 갓 벗어놓고 창옷 벗어 놓  
고 불을 때야. 불을 때야 자거던. 저녁밥은 먹었은 게.  
불을 때라고 상투바람으로 밖에를 나오니까 옆집의  
유과부가 와서....」

상투는 기혼 남성을 상징하는 머리 형태로서 설화  
의 내용에서 한 진사가 상투 바람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도둑 아버지를 둔 딸의 기지』<sup>44)</sup>와 『은동곳 전  
설』<sup>45)</sup>에서는 통낭갓, 풍잠, 망건, 망건당줄, 동곳 등이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다.

『도둑 아버지를 둔 딸의 기지』에는  
「박문수 삼촌이 채린 좋은 통낭갓은 옷철도 좋은  
것을 써 햇벌에서 불 때 서리빛이 나고, 호박풍잠(風  
簷)에 잎뚱당건(人毛綱巾)에다 쥐꼬리 당귀(망건 당  
줄), 『은동곳 전설』에는 상투에는 동곳을 꽂았거든  
요 예전에 동곳이 은동곳이예요 이 은동곳을 잘 깎아  
서 그 늬므로다 해 꽃았죠, 그것이 없는 사람은 감나  
무루 해 꽃구....」

갓과 풍잠, 망건, 망건당줄, 동곳 등의 머리를 수식  
하는 품목들은 등장 인물이 기혼 남성임을 상징한다.

『관상을 잘 본 김정승』<sup>46)</sup>에서는 방문한 손님이 금  
관자 붙인 갓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  
다.

「금관자 붙인 갓을 쓰고, 통낭갓에다 참 거창한 손  
님인데 청헌 집을 찾는 걸 본 게...」

갓은 기혼 남성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이다. 설화에  
서는 금관자 붙인 갓이라고 하지만 관자는 갓에 붙이  
는 것이 아니라, 망건줄을 고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갓과 금관자는 기혼 남성을 상징한다.

####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 설화에 나타나는 복식을 조  
선시대를 중심으로 하여 복식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  
적 상징을 찾아서 상징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구비문학 대계』에서 17편,  
『한국민속학』에서 6편이 발췌되어 총 23편의 설  
화가 분석에 사용되었는데 상징이 갖는 다의성으로  
인해서 3편은 중복되어 사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정치 상징은 정치 관계와 정치 이념 등이 나  
타났다. 사신이 명나라 관복 차림으로 청나라 황제를  
대면하는 것은 중국과의 종속적 정치 관계뿐 아니라  
한족에 대한 모화 사상을 표출하였으며, 공주로 하여  
금 비단 수 치마를 못 입게 하는 왕의 행동은 사치 억  
제라는 정부의 정치 이념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훈을 주는 설화의 기능이 잘 반영된 예로 볼 수 있  
다.

둘째, 관습 상징을 나타내는 등장 인물의 복식으로  
는 다음과 같다. 조혼을 상징하는 초립, 출가와 환속  
에 따른 머리 길이의 변화, 결혼 여부를 나타내는 남  
녀의 머리형태로 나타났으며, 결혼 여부를 상징하는  
머리 형태로는 미혼 남녀의 땀은 머리, 기혼녀의 쪽진  
머리, 기혼남의 상투로 관습적인 머리 형태를 상징하  
였다.

셋째, 성별과 연령 상징으로 나타난 등장 인물의  
복식이나 외모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여아를 상징하는  
것으로는 짧은 옷으로 나타났으며, 남아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봉숭한 머리와 중의도 벗고 다니는 행동으  
로 상징되었다. 성인 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는 길게  
땀은 머리, 땀기와 비녀, 머릿기름, 玉門 등이 있으며,  
성인 남성을 상징하는 것으로는 수염, 구레나룻이 있

4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보쌈으로 얻은 사위,” *한국구비문학 대계* 1권 1호, p. 406.

4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둑 아버지를 둔 딸의 기지,” *한국구비문학 대계* 5권 6호, pp. 256-257.

4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은동곳 전설,” *한국구비문학 대계* 1권 8호, p. 318.

4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관상을 잘 본 김정승,” *한국구비문학 대계* 5권 6호, p. 324.

으며, 흰색 수염은 노인 남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결혼 여부를 상징하는 복식이나 외모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남녀 모두 머리 형태로서 미혼 남녀의 땅은 머리, 기혼녀의 쪽진 머리와 얇은 머리, 기혼남의 상투로 나타났으며, 갓, 풍잠, 동곳, 망건, 관자 등의 머리 장식은 기혼 남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머리 형태는 관습, 성별과 연령, 결혼 여부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어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위 및 신분 상징과 경제 상징을 제외한 사회적 상징을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자는 문화적 상징, 심리적 상징을 함께 분석한 바 있는데 그 결과, 사회적 상징이 60%, 문화적 상징 28%, 심리적 상징 12%로 나타나 복식의 사회적 상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양의 문학 작품을 자료로 복식 상징을 분석한 이유경과 김희선의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동서양 모두 복식의 사회적 상징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 관계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가 신분형 사회 체제였기 때문에 복식의 사회적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복식이 사회적 산물임을 재입증한 것이라고 본다.

전통 설화는 한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관습, 도덕, 종교 등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인성이나 기분 등의 심리적 측면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통 설화를 연구 자료로 하여 다른 연구 방법으로 복식 상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현룡 (1998). *한국문화실화*.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희선 (1994). "Pearl S. Buck 소설의 복식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현국 (1992). "설화의 신화적 구조와 상징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원룡 (1993). *나뭇꾼과 선녀설화연구*. 서울: 집문당.
- 배중탁 (1987). "풍수설의 국문학의 수용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유경 (1993). "Charles Dickens 소설에 나타난 복식 상징성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덕순 (1970).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동아 새국어 사전 (1983). 서울: 동아출판사.
- 한국구비문학대계 (1988).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Durand, Gilbert (1983). *상징적 상상력*, 진형준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 House, J. S. (1977). "The Three Faces of Social Psychology." *Sociometry* 40.
- Kefgen, M. and P. T. Specht (1972).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Kim, Jin Goo (1977). "Korean Costume: An Historical Analysi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Mukejee, R. (1959). *The Symbolic Life of Man*. Bombay: Hind Kitabs Limites.
- Pondy, L. R., P. J. Frost and G. Morgan (1983). *Organizational Symbolism*. Greenwich : Jai Press Inc.
- Radcliff-Brown, A. R. (1967). *Structure and Function in Primitive Society: Essays and Address*. London: Bohen and Row.
- Rasmussen, D. M. (1988). *상징과 해석*. 장석만 역. 서울: 서광사.
- Roach, M. E. and J. B. Eicher (1992). "Dress and Ident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4).
- Rosencranz, M. L. (1972). *Clothing Concepts: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New York: The Macmillan Co.
-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1989). 2nd ed. Vol. 10. Oxford : Clarenton Press.
- White, L. A. (1969). *The Science of Culture*. New York: Farrar, Struss, and Giroux.